

이라크 전쟁을 소재로 한 한국 시의 반전의식 양상

문혜원
(아주대학교)

◆ 국문초록

이라크 전쟁의 실제 목적은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고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전쟁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반미와 반전운동이 확산된다. 이라크 전쟁은 한국 시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넘어서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전쟁'과 '반전'을 주제로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다. 그것은 '반전'과 '평화'라는 전 세계적이고 동시대적인 이슈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라크 전쟁을 소재로 한 한국 시들은 참상을 고발하고 증언하는 시,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로 나누어진다. 전쟁의 참상을 그린 시들은 폭력에 희생된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미국이 저지른 만행을 고발한다. 이를 위해 실제 작전명을 인용하기도 하고 이라크 아이를 화자로 내세워 호소력을 더하기도 한다. 여기서 시인은 전쟁의 폭력성과 부당함을 폭로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시들은,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기인한 것이고, 미국의 침략 행위가 오래 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것임을 폭로한다.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한국의 피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이와는 달리 '전쟁'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과 자기중심성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평화' 운동과 연계된다. 이는 폭력의 반복이 결국은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이는 생명존중 사상과 연결되며, 평화와 비폭력 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주제어 : 이라크 전쟁, 미국, 반전, 평화, 고발, 증언, 생명 존중

1. 서론

한국은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피해 당사국으로서 잠정적 전쟁 소강 상태인 ‘휴전’ 중인 국가이다. 한반도는 해방 후 남북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분단이 고착화된 가운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가와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준전시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반전(反戰)’은 신념과 사상을 넘어서 생존과 관련된 실질적 이슈인 셈이다. 한국 시에 나타나는 반전의식은 이러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다.

소급해 올라가면 ‘반전’이라는 주제는 한국 전쟁과 그 상흔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의 시들에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 상실감과 허무의식 등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가 전쟁에 반대하는 간접적인 이유가 된다. 한국전쟁의 상처는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기억되고 재현되고 있다(이해인, 「슬픈 기도」, 이동순, 「YELLOW CARD」 등). “앞산도 뒷산도 저 개울 건너 논배미도/ 모두 다 내 살과 피처럼 젖어 살던 날들이었는데/ 너른 광목천 찢어지듯 좌악 갈라지는 소리/ 혼돈의 문명이 시작되는 소리/ 그 혼돈으로 뒤범벅이 된 내 현대사”(노창선, 「소리의 기억」)라는 구절은 한국전쟁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시작이며 현재 역시 전쟁 상황의 지속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은 한국 시에서 ‘반전’이라는 주제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한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전쟁 후의 시들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원체험의 형태로 가지고 있고, ‘반전’은 민족상잔의 경험과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민족적이고 특수한 시적 주제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전쟁과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반전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 상황을 반복 재생산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을 방해한다.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피해를 호소하는 차원을 벗어나 그것을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보편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반전’은 전 세계적이고 전 인류적인 이슈로서 이에 동참하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전쟁은 특정한 국가의 전쟁을 넘어서 세계 전쟁의 형태를 띤다. 국지전은 언제든지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고, 생물학적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들은 해당 지역만이 아닌 전 세계를 파괴하고 인류 멸망을 부추긴다.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의 중요한 원인은 자원 약탈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발발한다. 전 세계는 언제든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 ‘반전’은 우리 ‘지역/민족/국가’에 닥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인류의 일원으로서의 우리’에게 닥친 위협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인류의 생존과 지속이라는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 시가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전쟁과 그에 대한 저항의지를 드러내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이라크 전쟁¹⁾이다. 2003년 발발한 이라크 전쟁은 9·11 테러 이후 행해진 미국의 보복 전쟁의 일환으로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테러 집단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이라크인을 학살한 사건이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반전 여론²⁾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점령 직후 이라크 전역에서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을 조사했지만 증거를 발견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9·11테러위원회 역시 9·11의 주모자로 알려진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의 협조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전쟁의 실제 목적이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고 친미 정권을 세워 중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³⁾ 그 결과 이라크 전쟁은 전 세계인의 반미 감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반전의를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⁴⁾

1) 이라크 전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근욱, 『이라크 전쟁』, 도서출판 한울, 2011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 미국의 전쟁을 저지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은 2002년 12월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반전회의에서 채택된 ‘카이로 선언’에 결집되었다. 이 선언은 2003년 1월 브라질에서 열린 제3회 세계사회포럼에서 반전평화-반미 전선을 형성하자는 결의로 이어졌다. - 김승국,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구도」, 『기억과 전망』, 2003.여름, 105쪽.

3) 이철기,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전쟁 위기」, 『기억과 전망』, 2003.여름, 88쪽 참고.

이라크전쟁을 소재로 한 한국 시들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반전’과 ‘평화’라는 보편적인 이슈에 동참하는 것이다. 시인들은 이라크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참상을 고발하면서 ‘한국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제국주의 전쟁의 일환으로 발발한 것이고 그것의 극복과 해결 방안 또한 세계적이고 동시대적인 반전·평화 운동의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라크 전쟁을 소재로 한 시들은 반전의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연결함으로써 한국 시의 외연을 확장한 중요한 텍스트들이다.

이와 같은 의의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반전과 평화를 주제로 한 시들을 모아 간행된 『전쟁은 신을 생각하게 한다』(고은 외, 화남, 2003)를 텍스트로 하고 그 중에서도 이라크 전쟁을 소재로 한 시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국 시에 나타나는 반전의식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전쟁의 참상 고발과 시인의 역할에 대한 규정

전쟁은 인간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속성과 과학 기술의 발전이 결합된 극단적인 상황이다. 그것은 인간을 선과 악, 적과 동지로 나누고 ‘나’의 편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을 ‘적’이자 ‘악’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한다. 2002년 1월, 조지 W. 부시가 의회 합동 연설에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비판한 것이 그 예이다. ‘악의 축’으로 규정된 국가들은 모두 반미 정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 중 이라크는 미국이 걸프전에서 제거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사담 후세인이 있는 국가였다. 따라서 ‘악의 축’이라는 발언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었다.

4) 이라크전쟁을 전후한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전개 과정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편, 『세계분쟁과 평화운동』, 아르케, 2004 참고.

다음 해인 2003년 미국은 이라크가 탈레반과 같은 테러집단을 지원하고 있고, 핵무기와 생화학적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라크를 침공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한 후 2주 만인 4월 9일 바그다드가 함락됐고 사담 후세인 정부는 붕괴되었다. 조지 부시는 바그다드가 함락된 직후 종전을 선언했지만, 이라크 정부 붕괴 이후 치안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고 폭탄 테러와 게릴라전이 10년 넘게 계속됐다.⁵⁾ 미국은 걸프전과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에서 사용했던 열화우라늄탄을 이라크 지역에 쏟아 부음으로써 단시간 내에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했다. 열화우라늄탄은 폭발 시 방사능을 방출하여 각종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 불임 또는 조산의 원인이 되며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물질이다. 걸프전에서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된 후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은 ‘걸프전 증후군’으로 불리우는 암과 백혈병, 저혈압, 기억상실 등의 질병으로 고통 받았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다시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여 이라크 및 주변 지역에 방사능을 유출시켰다.

미국의 이러한 반인륜적인 전쟁은 전 세계인으로 하여금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라크 침공 전부터 전 세계에서 전개된 반전 운동은, 전쟁 후에는 미국이 저지른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운동으로 연결된다. 이라크전을 소재로 한 시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적지 않은 시들이 정보 전달과 알림의 형태로 쓰여지는 것은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1991년 이라크 걸프전을 단행했다
 최신 무기 자랑하라
 폭격
 포격 적중률
 폭발 광경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환상이라고

5) 오인석, 『세계현대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621-625쪽 참고.

6)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에 대해서는 로버트 피스크, 「숨겨진 전쟁」, 노엄 촘스키 외, 『미국의 이라크 전쟁』, 이수현 역, 북막스, 2002, 191-206쪽 참고.

예술이라고 떠들었다
사담 후세인 너는 사탄이었다
(중략)

2002년
그는
아프간을 없애버렸다 지구는 초토화되기 시작했다
아프간 이후
그는 또 어디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어디로 건너가고 있다
바그다드
혹은
어디로
그는
가고 또 가고 있다

- 고은, 「그」 부분

이 시는 1945년 일본에 원폭을 투하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과테말라, 쿠바, 인도네시아, 페루, 라오스 등 미국이 개입한 크고 작은 전쟁 연도와 국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시를 전개하고 있다. 시에 나오는 연도들은 전쟁의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다. 시인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최소화하고 전쟁이 일어난 국가와 연도를 죽 배열해놓고 있다. 시의 내용이 주관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알림과 보고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때 시는 정보 전달이 극대화된 형태로서, 제공되는 정보의 사실 여부와 충실도가 시의 평가 기준이 된다. 이는 시인이 특수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이슈를 ‘더불어 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과 독자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시는 공유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유형의 시들은 은폐된 사건의 진모를 폭로하고 실상을 알리며 독자로 하여금 공동체적 실천 행위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시란 무엇인가’ 혹은 ‘시인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인 질문에 닿아있다. 전쟁은 인간의 폭력적인 속성이 표출되는 동시에 평화를 지향하고 폐허를 복원하려는 의지가 분출되는 양면성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인간에 내재된 악과 그것에 저항하는 선한 의지가 공존하는 모순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의 선한 의지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인 상황에서 시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시인의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벗이여
나 이제 시인 아니라도 좋다
서정적 진실에 관해서
시적 아름다움에 관해서

우리 이제 세계를 그만 속이자
시를 써서 이제 제발 그만 죄를 짓자

벗이여
나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바그다드 눈부신 노을 속으로
하나 둘 떠오르는 초저녁 별빛이
대량살상용 화학무기공장 불빛이었기에
폭격했다는 슬픈 미제의 언어
그들은 내 고향 매향리에서도 그랬고
노근리에서도 그랬다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폭격 타깃일 뿐이었다
그들은 적이 없으면 수시로 새로운 적을 창조해야 했다

- 홍일선, 「聖반미론」 부분

서정적인 진실이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기만이 되고 죄가 되는 현실은 시인에게 가장 가혹한 상황이다. 시인은 서정성을 포기하는 대신 감춰진 진실을 폭로하는 임무를 떠안는다. 미국의 기만적인 폭력은 이라크만이 아니라 한국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라크 민간인 학살은 1950년 7월에 있었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과 다르지 않고, 1951년에 만들어진 매향리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또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전쟁 놀음이

초래한 환경오염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시로 쓰는 것은 서정적 진실이나 시적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지킬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위중함을 알리기 위한 방법적인 자기 부정이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는 시들은, ‘충격과 공포’라는 실제 작전명을 인용하며 학살의 뻔뻔함과 잔인함을 부각시킨다. 부시 정권은 단시간 내에 이라크 전역을 장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라는 작전을 내세웠다. 이것은 전쟁 초기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신속히, 동시에 사용하여 압도적인 전력으로 적의 주요 기지와 무게중심을 타격함으로써 적의 전쟁 수행 기능을 상실시키고 저항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미국이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대다수인 수많은 이라크 민간인들이 살상됐다.⁷⁾

미사일 파편이 온몸에 박힌 채 실려온
다섯 살짜리의 여자아이와
머리가 으깨어져 죽은 소년에게도
공습은 분명 충격과 공포였으리라
오늘 당장 죽고 다치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과
고아로 불구자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이들의 미래
충격과 공포의 나날일 것이다

- 도종환, 「충격과 공포」 부분

위의 시에서 작전명인 ‘충격과 공포’는 폭격 당한 사람들이 겪었을 ‘충격’과 ‘공포’로 인유된다. 온몸에 파편이 박힌 여자아이와 머리가 으깨져 죽은 소년의 이미지는 시를 읽는 독자의 머릿속에도 강렬하게 각인되어 ‘충격’과 ‘공포’를 재생산한다. 시인은 처참한 이미지들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충격과 공포’라는 작전이 얼마나 노골적인 학살이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다(“그 미사일이 집을 부수고 지진처럼/ 땅을 흔들며 지나가는 폭발음 밑

7) 미국 NBC 방송은 국제인권단체의 조사결과를 인용해서, 미·영 연합군이 ‘충격과 공포’ 작전으로 바그다드를 폭격함으로써 최고 2천7백6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 김문환, 『이라크, 미국, 한반도』, 다인미디어, 2003, 52쪽.

에서/ 밤을 새운 이들에게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였으리라/ 일찍이 나는 이런 노골적인 작전명을/ 본 적이 없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이 테러집단을 응징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 한편 독재자인 사담 후세인의 인권 침해에서 이라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후세인의 독재를 용납해왔고 80년대에는 후세인의 생화학무기 개발을 돕기도 했다.⁸⁾ 그러다가 후세인이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를 제거할 목적으로 걸프전을 일으켰고, 여기서 후세인을 제거하지 못하자 2차로 이라크를 침공한 것이다. 다음 시는 그러한 미국의 기만적인 행위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폭로하고 있다.

저는 당신들이 해방시키려는 바로 그 아이예요
저는 당신들이 하루 종일 쏘아댄 미사일에
머리 한쪽이 날아갔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해방의 느낌을 느낄 수 없었어요
우리 이웃들 중 누구도
이런 식의 해방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들이 보호하려 한다던 바로 그 아이예요
내 이름은 알리 파이잘
당신들이 쏜 열화우라늄탄에 맞아
태어나면서부터 악성 암으로 누워 있어요
평생을 이렇게 오래오래 고통받으며
죽어갈 거예요

- 도종환, 「저는 당신들이 죽이려는 바로 그 아이예요」 부분

8)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를 외교적으로 지지하고 군사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적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승인한 계약에 따라 워싱턴 외곽에 있는 아메리칸 타입 킬러 킬렉션이라는 회사가 탄저균과 대장균, 그리고 보툴리누스 중독[식중독의 한 가지]과 다른 많은 끔찍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 무기 재료를 이라크에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데이빗 버사미안과 행한 인터뷰에서 필리스 베니스가 한 말로서, 베니스는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사를 근거로 들고 있다. - 노엄 촘스키 외, 앞의 책, 90쪽.

이 시는 죽어가는 이라크 아이를 화자로 내세워 미국의 위선과 기만, 전쟁의 부당함을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당신들이 죽이려는 바로 그 아이’는 ‘당신들이 자유와 평화를 안겨 주려 하던 바로 그 아이’이고 ‘당신들이 보호하려 한다던 바로 그 아이’이다. 이라크인들을 독재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전쟁은 사실상 후세인 독재에 희생되어온 피해 당사자인 민간인을 죽이는 것이었고, 이라크에 퍼부은 열화우라늄탄은 악성 질병과 환경오염을 초래해서 이라크인들을 그 전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할 것이다. 시에서 아이 화자의 목소리는 이 전쟁이 정당성이 없는 민간인 학살에 지나지 않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상의 시들이 폭격으로 인한 참혹한 상황을 재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데 비해, 다음 시는 그러한 아비규환의 현장을 증언하고 보존하는 시인의 역할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 가난한, 헐떡이는, 별거벗은,
마지막 저항의 힘도 남아있지 않은 육체 위로
제국의 영광에 가득 찬 애국 미사일과
충격과 공포의 강요된 타락한 힘이
아가리를 째 벌리고 달려든다

아이는 갈가리 찢겨 폭 쓰러진다
아이의 희미한 올리브나무도
오아시스 가의 작은 속삭임도
몇 송이의 봄꽃들도
그리고 나는 보았다 아이의 찢어진 육체로부터
두 개의 응시하는 검은 구슬이 홀로 생생하게 떨어져 나와
역사의 사막 위로 굴러가는 것

우리는 죽은 아이와 함께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보았고 알았던 것을

- 김정란, 「증언」 부분

위의 시는 한 아이가 죽어가는 장면을 천천히 클로즈업함으로써 비극성

을 더하고 있다. 올리브 나무와 작은 봄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던 아이는 날아온 미사일에 사지가 찢겨 죽는다. 아이와 아이가 기억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계는 한순간에 무참하게 파괴된다. ‘아가리를 째 벌리고 달려드는’ 폭격과 ‘갈가리 찢긴’ 연약한 아이의 대비는 ‘충격과 공포’ 작전의 무자비한 살상 장면을 극대화한다.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아이의 찢어진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눈’이다. ‘두 개의 응시하는 검은 구슬’이라고 표현된 ‘눈’은, 죽어간 아이의 것이면서 상상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이다. 미국이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합리화한다 해도 처참한 학살 광경을 목도한 ‘눈’은 스스로 지켜본 진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흐른 뒤에도 진실을 잊지 않고 역사를 증언할 것이다. 시인은 희생자인 아이의 ‘눈’을 빌려서, 시인의 역할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존과 증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전쟁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진실 규명

‘반전’이라는 주제는 심정적인 공감과 지지를 넘어서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현재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은 표면상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과 초국가적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한 기획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주의 진영이 붕괴된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21세기에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추진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사실상 중동이 보유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장악하기 위한 자원 전쟁이었다. 미국은 21세기 마지막 보고인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장악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켰다. 이라크 전쟁은 세계 최고의 생산성과 고품질을 자랑하는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계 에너지원과 원유 가격 통제력을 장악하는 것은 경제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냉전 시대에 미국의 패권주의와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였던 ‘반공주의’가 퇴색되자 그 대신 ‘반테러리즘’을 내세워 자국이 일으키는 전쟁을 정당화한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

로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의 ‘선제 사용 전략’을 합리화한다.⁹⁾ 이라크전쟁은 이상과 같은 미국의 전략이 만들어낸 기획된 전쟁이었던 것이다.

부시는 정권을 잡음과 동시에
강경발언을 일삼더니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이어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내세워
수입 철강제품에
8%에서 30%까지 고율관세를 부과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구나
미국의 강타가
각국의 역강타에 부딪히자
무지막지한 부시
무식쟁이 개망나니 부시
강대국 값도 못하는 부시
나오는대로 씨부렁거리다
내뿜은 인사 주위담지 못해
쩨쩨 매는 꼬락서니라니
전세계가 어디 자기 나라 뜻대로
전세계 인민이 어디 자기 나라 종인가

- 임수생, 「부시한파」 부분

위의 시는 중동에서의 전쟁이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에 기인한 것임을 비판하고 있다. 부시는 9·11 테러 세력을 응징한다는 구실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합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적 침공과 경제적 제재를 번갈아가며 약소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물질·인적 자원을 약탈하고 상품 시장을 확보하려는 제국주의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민족 지도자들을 제거하여 독립 정부 수립을 방해하고 친미 정권을 세워 세계를 지배해온 미 제국주의의 침략의 역사와 나란히 진행되어온 것이다.

9) 이철기, 앞의 글, 87-91쪽 참고.

세계의 도처에서
모사데크와 모든 자주의 민족의 싹을 자르며
아옌테를 살해하고 모든 세계의 진보정부를 전복시킨
아메리카
네루다를 슬프게 만든 아메리카
죽산 조봉암을 죽인 배후에
멀찍이 미소짓는 아메리카
그 아메리카의 펠릭이는 성조기를
춘천 호반의 아름다운 도시 한복판
아메리카 군대의 기지
캠프 페이지 앞에서
오십년을 바람에 펠럭여온
팍스 아메리카의 지배와 범죄를 탄핵하며
나도 분노의 눈으로
분노의 심장으로
서있었습니다.

(중략)

아메리카
저 산군복합체의
지배체계
때로는 우아한 미소와 통치기술로
달려와 군대로 세계를 막강하게 지배하는
벌거벗은 초국적 자본주의의 사슬

- 최자웅, 「작가의 초상」 부분

위의 시는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자주 독립의 싹을 자르고, 진보주의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정권을 세워 전 세계를 장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는 그 지역을 정복한 정복자의 표식이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봉암이 죽고, 친미적인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과정은 미국이 다른 국가를 장악했던 과정과 다르지 않다. 한국전쟁 당시 해방군으로 불리웠던 미국은 민족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었고 한국전쟁은

미·소의 이데올로기 대리전이였다. 시인은 미제국주의의 만행의 역사를 보여주고, ‘평화(Pax)’를 내세우면서 무력으로 세계를 침공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 시는 현대의 전쟁이 냉전 시대와는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진행됨을 짚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군수업체들의 무기 판매 시장을 확보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최대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산군(産軍)복합체’ 형태의 군수산업이 미국 경제의 대등보 역할을 해왔다. 군수산업은 구소련과의 군비 경쟁 과정에서 지속적 성장을 해왔으나 구소련 붕괴 후 침체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부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막대한 정치 자금을 제공한 군수업체들의 이익을 보전해줘야 했고, 이를 위해 첨단 무기들을 실험하고 재고품들을 소비시켜서 새로운 생산 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했다. 실제로 침략전쟁을 주도했던 부시의 측근들이 군수산업체의 전직 임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¹⁰⁾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군수물자를 생산 판매하는 초국가적 산업자본과 정치권력이 결합한 결과인 것이다. “아메리카/저 산군복합체의/지배체제/때로는 우아한 미소와 통치기술로/달려와 군대로 세계를 막강하게 지배하는/벌거벗은 초국적 자본주의의 사슬”이라는 구절은 이러한 전쟁의 원인을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다.¹¹⁾

그러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현대 전쟁의 원

10) 신병식, 「미국의 이라크 침략, 그 배경과 목적」, 『농촌과 목회』 18, 2003, 10-13쪽 참고. 최영진, 「반전 평화 윤리를 향한 고찰」, 영남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에서 재인용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편, 앞의 책, 27-28쪽 참고.

11) 반전을 주제로 한 많은 시들이 ‘반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결론이다. 김정환의 「섬광과 참혹」 (“그래 ‘충격과 두려움’/ 그 옛날 앗시리아인들의 무기는 두려움이었다/ 다시는 대들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그 결과 앗시리아 제국은/ 흔적도 없다……이것은 앗시리아인 자신들이 남긴 기록이다”), 이재무의 「반대한다」 (“가이아 대모신이 앓는 소리, 두려워하라/ 부메랑되어 재앙은 당신들을 찾을 것이다”) 등은 미국의 패망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폭력의 자기회귀적인 속성에 천착한 것이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힘은 더 큰 힘을 불러오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를 고스란히 되돌려 받음으로써 멸망하리라는 것이다. 이는 전쟁과 폭력을 등가로 놓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비폭력과 평화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인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전쟁 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그것으로 집약되어 있는 초국가적 정치와 경제의 카르텔이다. ‘미국’이라는 초국가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은 또 다른 집단 혹은 권력으로 대체될 수 있고, 그것에 희생되는 국가 또한 이라크가 아닌 다른 국가로 대체될 수 있다. 오늘의 이라크가 내일은 어느 나라일지 알 수 없는 것이다(고은, 「나의 편지」). 세계 모든 국가는 언제든지 전쟁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잠정적인 상태에 있고, 전쟁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본성과 연결해서 설명하려는 시도 있다. 이것은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것과는 달리, ‘전쟁’이라는 반인간적인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고 반복될 수 있는지를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제 여인의 허리를 껴안던 팔로
남의 여인의 허리를 쏘려고 조준을 한다

제 딸아이의 볼을 쓰다듬던 손으로
남의 딸아이의 볼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제 아들의 발등 앞에 축구공을 차주던 발로
남의 아들의 발등을 짓밟개는 탱크를 운전한다

제 마을의 울타리가 부서지면 달려나가 수리하더니
남의 마을의 울타리는 박격포로 부숴 버린다

제 나라의 나무와 꽃이 목마르면 물도 잘 뿌려주더니
남의 마을의 나무와 꽃에는 수천 발 미사일을 퍼붓는다

드디어 미쳤다……

제 집의 개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남의 집의 사람은 개보다 더 중요한다

- 안도현, 「드디어 미쳤다」 전문

위의 시는 전쟁이 반복되는 원인을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속성에서 찾고 있다. 전쟁에서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사람도 한 개인으로 돌아가면 아내와 지식을 살뜰히 챙기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남의 가족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기 마을과 나라를 지키는 명목으로 남의 마을과 나라를 초토화시킨다. 이것은 자기 집의 개는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남의 집의 사람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행위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나’와 ‘남’의 구별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물론 울타리와 꽃과 나무, 짐승까지, ‘나’의 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중하고, ‘남’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파괴하고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미쳤다’고 표현한다. 모두가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면, 세상은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무한 전쟁 상태가 되고 결국 인간은 머지않아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이는 전쟁을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과 왜곡된 가치관이 표출된 사건으로 보고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3. 대안으로서의 생명 의식과 평화 운동

반전 운동은 실천적인 면에서 종종 평화 운동적 성격을 지향한다. 이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보복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일은 종종 보복을 구실로 전쟁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미국이 9·11 테러를 구실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라크 전쟁까지 확대해간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보복 전쟁은 폭력의 무한 악순환을 낳고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남긴다. 전쟁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허가하는 면책 조건이 될 수는 없다.

9·11테러는 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과 저항을 표출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지만 희생자들은 고위층이나 군수산업체와는 상관없는 민간인들이었다. 미국인이긴 하지만 그들 또한 폭력의 무고한 희생자이긴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에서도 테러와는 상관없는 수많은 민간

인들이 희생되었다. 전쟁은 전쟁을 일으킨 실질적인 집단만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육하는 야만적인 사건이다. 9·11테러에 대한 착잡한 반응은 전쟁의 복합적인 측면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박관서, 「110층의 사랑은」, 정인화, 「추모한다」 등).

처음엔 죄 없이 죽어간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잔을
다음엔 미 제국의 아침에 활활 불타는 성조기에게 축배의 잔을
일배 일배 부일배 술을 마시는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이 죽어가고
이라크와 북한은 악의 축으로 규정되었다

- 이원규, 「제국의 저녁」 부분

이 시는 미 제국주의가 공격받는 데서 느끼는 카타르시스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응을 설명하면서, 테러 행위가 보복 전쟁의 빌미가 되어 또 다른 희생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비판과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반전운동이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많은 시인들이 ‘반전’을 공통적인 주제로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반복되면서 지구는 점차 초토화되고 이는 결국 인류의 멸망을 앞당길 것이다. 그러므로 반전은 인류 공통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이자 사명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은 반전과 생명존중의식을 연계하는 것이다.

몇몇 시들에서 전쟁은 문명의 이기가 초래한 인재(人災)로 해석된다. 전쟁은 인위적인 문명의 극한적인 부정적 상태로 규정되고, 자연의 위대함을 강조하거나 자연친화적인 삶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自然保護하는

基地에로의 3박4일 관광여행:

핵지뢰밭 위의 푸른 도라지밭을 마구 밟고 다니는 노루.

산까치가 콩알만한 불티로 레이다 그물을 빠져나간다.

새는 그물보다 높이높이 난다.

- 황지우, 「레이다를 빠져나간 새」 전문

인간은 군사 기지를 만들어 땅에 지뢰를 묻고 레이다로 공중을 제어하지
만, 지뢰밭에 푸른 도라지꽃이 피고 그 위에 노루가 뛰어다니고, 새들은 레
이다 망보다 높이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시인은 군사기지에서 오히려 인간
의 무력함과 자연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있다. 인간이 아무리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개발한다 해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
는 것이다.

이는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꽃은 다시 피는 것처럼, 자연의 힘에 기대
어 파국의 상황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부시한파
가/ 아무리 꽃샘추위를 타고 불어닥쳐도/ 겨우내 꽃망울을 맺던 목련은/ 미
국의 부시를 깔보듯/ 드디어 꽃망울을 터뜨려/ 활짝 웃음을 우리에게 주는
구나/ 계절이 있고/ 꽃이 있는 세상은/ 막돼먹은 정치가들이/ 찢뜩없이 변덕
을 부리고 부려도/ 외롭지 않다는 것을/ 꽃들은 상징적으로 당당하게/ 우리
에게 전하고 있구나” - 임수생, 「부시한파」).

그러나 문명의 이기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를 수 없거나 당연하고 자연
스러운 것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은, 구체적인 실천이 동반되지 않을 때 낭
만적 기대나 자기 위안으로 그칠 수도 있다. 이것이 낭만적인 바람으로 그
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을 생명이 살아가는 터전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쟁 반대
운동은 생명존중과 생태계 보호라는 주제로 연결된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결단을 축하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성명
인간이란 참으로 귀중한 생명이라고 말을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선언하지 못한 종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민족과 민중 자기자신의 생명을

인간이란 존재를 가장 존중해야 한다.

- 박진관, 「전쟁반대 파병반대 조계사농성」 부분

위의 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¹²⁾을 반대하는 조계종의 성명을 지지하며, 반전 운동이 종교적인 실천의 한 양상임을 말하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전쟁이 인간을 비롯한 생명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며¹³⁾ 따라서 불교가 반전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반전’은 민족이나 종교의 구분을 넘어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당연하고 절대적인 선언이다. 이는 한국인의 반전의식과 세계 평화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¹⁴⁾

이처럼 보편적 윤리와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전과 평화 운동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다.¹⁵⁾ 국가가 공식적으로 전쟁 참여를 거부할 수 없을 때 한 개인으로서 전쟁 현장을 찾아서 파괴와 살육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⁶⁾ 이것은 파병이 ‘나’의 이익과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 ‘남’의 희생을 묵과하는 부도덕한 행위임을 비판하고, 전쟁 현장의 위협을 같이 하며 개인의 자격으로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 12)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전에 이어서 이라크전에도 파병을 요구받았다.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국전쟁 당시의 군사적 지원과 미국과의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면 파병을 거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정치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자유수호군’의 명목으로 파병을 결정했다.
- 13) 조계종은 2003년 10월 전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의 발의로 ‘지구촌공생회’를 창립하고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지구촌공생회’는 국제개발협력 NGO로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등 아시아 11개국과 아프리카 케냐, 중남미 아이티 등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지구촌 이웃들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국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송월주, 『세계를 껴안는 자비의 두 손』, 지구촌공생회, 2014 참고.
- 14) 이라크 전쟁을 전후하여 한국에서 전개된 반전 평화운동에 대한 내용은 김승국,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구도」, 『기억과 전망』, 2003 여름과 정옥식, 「한국 평화운동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과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4.5를 참고할 수 있다.
- 15) 한국에서는 2003년 1월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이 결성되었고, 이들은 개인 자격으로 이라크 현지에 들어가서 반전활동과 난민 구호활동, 의료지원활동, 민중지원활동 등을 펼쳤다.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이라크에서 온 편지』, 박종철출판사, 2003 참고.
- 16) 박노해는 평화운동가로서 세계의 분쟁 지역을 돌며 반전과 평화 운동을 펼친 바 있다. 그는 전쟁 현장에 가기 위해 암만과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무잠마 바그다드까지 갔지만, 이라크로 들어가는 경계 지역이 차단됨으로 인해 바그다드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 『전쟁은 신을 생각하게 한다』, 290쪽 참고.

포탄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벼섯구름이 채 흩어지기도 전에 다시 축구를 하고
아잔 소리가 울리면 다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
동생은 어제 산 운동화를 바꾸러 나가고
둘째 형은 낡은 자동차를 고친다고 기름투성이고
누이는 저녁을 준비하며 불을 피우고 차를 끓인다
지난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아래 깔려 죽은
아홉 살 아지자의 피가 말라 불은 벽돌 틈에서
노란 민들레는 무심히도 꽃망울을 피워내고
포연 속에서도 새들은 알을 까고
올리브 나뭇가지에 꽃은 피어나고
밀밭은 푸르고 대추야자 열매는 봉긋이 오르고
골목에 널린 흰 빨래는 눈부시게 펄럭인다

- 박노해, 「바그다드의 봄」 부분

위의 시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신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 주력한다. 전장에는 죽음과 애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죽고 모든 것들이 파괴된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한밤중에 수시로 공습사이렌이 울리고 폭격에 친구와 가족이 죽는 끔찍한 현장에서도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가족은 자동차를 고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그것은 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는 삶의 현장’이다. 대부분의 시인들이 가해자인 미국에 대한 비판과 고발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박노해는 전쟁의 현장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한다.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깔려 있다(“전쟁의 광기 앞에서도 사람의 힘을 믿습니다”- 박노해, 「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전쟁이 파괴한 것들을 되돌리는 것 역시 인간이라는 것이다. 시인은 전쟁의 광기에 같은 광기로 맞설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믿고 버티는 길을 택한다.¹⁷⁾ ‘나’를 공격한 ‘남’을 다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17) “무기의 힘과 전쟁의 광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들이지만, 진정한 우리 마음의 힘을 신뢰합니다. 총과 폭탄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의 힘, 사랑의 힘을 전쟁터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첨단 무기

사랑과 용서를 배품으로써 ‘남’에게도 반전과 평화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전’이 비폭력과 평화 운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Ⅲ. 결론

한국은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의 피해로 인해 전쟁에 대한 거부감과 피해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그것은 민족 분단 상황과 연결되면서 한국의 특수성을 형성해왔다. 한국 시는 한국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형상화해왔다. 이라크 전쟁은 이러한 한국 시가 보편적인 차원의 ‘반전’을 주제로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이다.

이라크 전쟁은 9·11 테러 이후 행해진 미국의 보복 전쟁의 일환으로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고 테러 집단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이라크 인을 학살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실제 이 전쟁의 목적은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고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전쟁을 전후하여 전 세계적으로 반미와 반전운동이 확산된다. 수많은 한국 시가 이라크 전쟁을 소재로 하는 것은 ‘반전’과 ‘평화’라는 전 세계적 이슈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의 전쟁이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전 세계의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반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사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지속이라는 보편적인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라크 전쟁을 소재로 한 한국 시들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증언하는 시와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시, 그리고 전쟁이라는 상황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로 나누어진다. 전쟁의 참상을 그린 시들은 전쟁 현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미국이 저지른 만행을 고발한다. ‘충격과 공포’라는 작전명을 인유하여 참혹상을 고발하거나 죽어가는

의 힘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부드러운 사랑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무력한 사랑과 정의의 마음들이 함께 하면 폭력과 전쟁조차 떨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노해, 「파병은 ‘오, 피스 코리아’의 치욕」, 위의 책, 280쪽.

아이의 목소리로 전쟁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한다. 이때 시인은 전쟁 현장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시들은,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에서 기인한 것이고, 미국의 침략 행위가 오래 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것임을 폭로한다.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한국의 피해 역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임이 강조된다. 이와는 달리 ‘전쟁’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과 자기중심성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평화’ 운동을 지향하게 된다. 이는 폭력의 반복이 결국은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이는 생명존중 사상과 연결되며, 평화와 비폭력 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의 시들은 한국 시가 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주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주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문학이 세계 문학의 일부분으로서 인류 공통의 주제와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고은 외, 『전쟁은 신을 생각하게 한다』, 화남, 2003.
- 김문환, 『이라크, 미국, 한반도』, 다인미디어, 2003.
- 김승국,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구도」, 『기억과 전망』, 2003.여름.
- 김승국, 『이라크 전쟁과 반전 평화운동』, 한국학술정보, 2008.
- 노엄 촘스키 외, 『미국의 이라크 전쟁』, 이수현 역, 북막스, 2002.
- 송월주, 『세계를 겨안는 자비의 두 손』, 지구촌공생회, 2014.
- 신병식, 「미국의 이라크 침략, 그 배경과 목적」, 『농촌과 목회』 18, 2003.
- 오인석, 『세계현대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 이근욱, 『이라크 전쟁』, 도서출판 한울, 2011.
- 이철기, 「미국의 패권주의와 한반도 전쟁 위기」, 『기억과 전망』, 2003.여름.
- 정육식, 「한국 평화운동의 성과와 전망, 그리고 과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4.5.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편, 『세계분쟁과 평화운동』, 아르케, 2004.
- 최영진, 「반전 평화 윤리를 향한 고찰」, 영남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이라크에서 온 편지』, 박종철출판사, 2003.
- 허남성, 『전쟁과 문명』, 플래닛미디어, 2015.

❖ ABSTRACT

The antiwar consciousness in
Korean poems based on the Iraq War

Mun, Hye-won

The real purpose of the Iraq War was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took control of Iraq's oil and retained its hegemony in the Middle East. Afterward, anti-American and anti-war movements spread around the world.

The Iraq war is an important event. Korean poetry goes beyond the specificity of 'Korean War and division' and puts 'anti-war' and 'peace' at the universal level on the subject. It means joining the global and contemporary issues of 'anti-war' and 'peace'.

Korean poetry based on the Iraq War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oetry that accuses and testifies to the devastation, poetry that identifies the cause of the war, and poetry that presents alternatives and solutions. The poetry is linked to the idea of respect for life, and appears in the form of peace and nonviolence.

Key Words : Iraq War, America, antiwar, peace, accusation, testimony, respect for life

■ 논문접수일 : 2018. 05. 10

■ 심사완료일 : 2018. 05. 31

■ 게재확정일 : 2018. 06. 30